

◆ 독일 AKA, 2001년중 8억 4,000만 유로 승인실적 기록

독일 수출금융공사(AKA)의 2001년 중 승인실적이 전년 대비 36% 증가한 8억 4,00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. 지원실적의 대폭 증가는 1997년 10월 신규 도입한 Line E(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CIRR 대출) 및 러시아에 대한 지원실적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.

자금 종류별로는 Line E 등 구매자신용이 8억 3,200만 유로로 전체 승인액의 99%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급자신용은 1% 정도에 그치고 있다. 부문별 지원비중을 보면 제철·기계·자동차 분야가 66%

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, 전자·정밀기계·광학 분야가 17%, 건설부문 8%, 무역·서비스 6%, 기타 3% 등으로 나타났다. 국가별 지원비중은 러시아가 33%로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남아공(31%), 터키(12%), 말레이시아(4%), 알제리(4%)의 순으로 나타났다.

AKA는 1952년 KfW로부터 수출신용업무를 인수하여 32개 민간은행의 출자로 설립되었으며, 공급자신용인 Line A, 구매자신용인 Line C·D·E 등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.

〈표〉 AKA의 연도별 대출승인 실적

단위 : 억 유로

구 분	1997년	1998년	1999년	2000년	2001년
신규승인액	18	10	26	6	8.4
대출잔액	106	84	93	72	64

【프랑크푸르트사무소】